

공감이 필요한 이유

아침을 열며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광주테크노파크의 경영 방침 첫 번째가 공감이다. 필자가 기업육성 지원을 하는 철학 가운데 두 가지가 기업가정신과 공감이다. 그래서 혁신과 창조적 도전을 일으키는 기업가정신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강의를 하곤 한다. 기업가정신은 창업을 일으키는 철학이고 기업을 혁신시키는 정신이다. 기업인들에게 진정한 기업가정신을 일깨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경제동력을 만들어 내는 일이어서 기업가정신센터까지 만들었다.

기업가정신의 핵심이 공감이다. 이 공감은 기업을 성공시키는 핵심 단어다. 공감이 있는 기업은 성공하고 공감이 없는 기업은 사라져간다. 기업에서 공감은 고객과 직원과 사회에 대한 관계다. 고객의 필요에 일치하고 직원들의 협력을 얻으며 사회에 기여 봉사하는 것이 공감이 있는 기업이다.

최근 북클럽 '스북스북'이라는 청년창업기업인 모임에서 필자를 초대해 '공감'을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AI 실감콘텐츠SW 푸드테크 치매예방 문화예술기업 협동조합 등 여러 지역의 다양한 분야

에서 활동하는 창업자들은 각자의 현장에서 경험한 소통과 공감의 필요성과 방법들을 이야기했다.

공감은 겸손이고 경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은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것으로 공자가 말한 역지사지(易地思之)란 말과 같다. 관심과 사랑을 보이는 일이다. 그러나 한쪽에서만 듣지 않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다.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의 핵심은 행동이다. 칭찬도 하고 박수도 치고 함께 웃고 울고 문제 해결까지 함께 해 가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소비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해 대중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성공했다. 공감능력이 고객의 필요를 파악하게 해 준 것이다.

공감능력은 혁신을 일으키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의류기업 파타고니아는 지속가능한 소재개발, 공정무역과 윤리적 생산, 제품수명연장, 고객소통과 창의적 기업문화로 유명한데 혁신비결이 공감이다.

세대는 X M Z세대 등 실로 다양하다. 고객은 글로벌하고 노동시장은 다문화다. 만일 공감능력이 없다면 사람도 구매도 다 얻지 못할 것이다. 다양성을 이해하는 공감이 필요하다.

모든 일이 성공하려면 공감형 리더가 중요하다. 공감형 리더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만든다. 직원들의 충성을

일으킨다. 고객들의 요청에 귀를 열고 유연하게 대응한다. 갑작스런 위기에도 직원들과 함께 신속하게 대처한다.

공감을 갖지 못한 리더가 하는 일은 하는 일마다 저항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감 리더십은 반대로 어렵고 복잡한 일도 쉽게 해결하게 해 준다.

공감은 기업의 매출증대와 성장을 일으켰다. 최고의 성과를 자랑하는 기업들은 이미 공감을 중시하고 공감 사업전략을 세운 곳들이다.

이런 공감의 중요성이 기업에게만 해당될까. 공감의 원리는 행정에도 정치에도 동일하다. 공감이 기업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기업성장의 비결이라면 공감 행정 공감정치는 민주주의 지역발전 국민행복을 가져오는 동력이라 할 것이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공감형 리더십을 찾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경제사회 행정 정치 각 분야에서 공감형 리더십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뛰어난 공감력을 가졌다는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리더십은 공감능력이다, 사람들과 공감하며 그들의 삶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고 했다.

세상은 비슷하다 그런데 오직 사람, 공감하는 사람만이 강력한 차별성을 갖는다. 공감문화의 확산이 필요한 이유다.

社說

전남대, 가까운 곳서 작은 것부터 바꿔야

2년차 글로벌대 두번째 탈락

2년차 '글로벌대학'에 광주·전남에서 광주보건대의 초광역권 전문대 연합 모델과 목포대가 지정됐다. 지난해 이어 두번째 예비지정 명단에 올랐던 전남대는 또 다시 탈락하며 지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 선정된 광주보건대와 목포대에 축하를, 탈락한 전남대에 위로로 보낸다.

글로벌대학은 오는 2026년까지 지방대 30개 단위를 지정해 5년 간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일 대학 지원 금액 기준으로 교육부 역대 최대 규모 사업으로 꼽혀 대학들의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 이번 본 지정 평가를 통과한 글로벌대학 단위는 국립목포대와 광주·대구·대전보건대, 원광대·원광보건대, 경북대 등 모두 10곳이다. 특히 올해는 사립대가 17개교 중 12개교로 많고 전문대도 7개교 이름을 올렸다. 보건계열 전문대학으로만 구성된 초광역권 연합대학 단위로 처음 지정됐다.

아쉬운 것은 전남대의 탈락이다. 이번 평가에서 전남대는 초광역 혁신공

동체 구축과 지·산·학·병·연 협치 등을 통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성공모델'로 재도전에 나섰지만 결국 탈락했다. 김종수 글로벌대학위원장은 '혁신성이 그만큼 부각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가 2년 연속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지역민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지방대의 통상적 여건과 변화 의지가 비슷한 상황에서 혁신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도 자의적인 평가일 뿐이다.

지난해 선정된 10곳의 글로벌대학 가운데 3곳이 취소나 국고 삭감 등의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다. 글로벌대학위의 면밀하고 투명한 심사가 필요하다. '예기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럽다'는 전남대의 안일함도 질타받아 마땅하다. 지역과 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비전을 내놨다면 적어도 혁신이 부족했다는 반성이나 미래의 계획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는 것이 지역민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좀 더 크고 멀리 내다보겠다'는 어쩌면 실현 가능성 없는 '뚝구름'을 좇기 보다 가까운 곳에서 작은 것부터 반성하고 바꾸려는 노력이 전남대에 주어진 과제다.

국제교류 역할 못하는 전남 해외사무소

민간위탁 등 개선 방안 내놔야

전남도가 해외 지자체와 국제교류, 우호 협력 통상 증진을 위해 개설한 해외 사무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이 해외사무소 2곳(미주, 유럽)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업무실행을 감사한 결과, 7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적발됐다. '전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외사무소 직원은 해외 지자체와의 교류협력 지원, 도내 기업의 무역·투자 알선·상담, 외자유치 활동과 기업체 동향관리 사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주사무소는 미국 애리조나주, 콜롬비아 보야카주와 각각 2010년, 2001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5년간 교류협력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에는 해외정보 수집·제공, 외자유치, 투자알선 수행 실적이 전혀 없었다. 유럽사무소도 1996년 독일 브레멘주를 비롯해 2015년 러시아 노보시비르

스크주, 2019년 오스트리아 티롤주, 2021년 덴마크 에스비에르시와 차례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도 교류 실적은 전무했다.

해외사무소 운영예산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주사무소는 2019~2023년 관계자 오찬, 특산품이나 컴퓨터 구입 등에 사무관리비 2370만 원을 부당 집행하고, 임대주택 가스·수도·전기료 1914만 원을 개인비용이 아닌 혈세로 사용했다. 해외 사무소의 업무 평가도 하지 않았고 실적 평가도 없이 공무원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사례도 밝혀졌다. 앞서 지난 2월 중국, 일본, 동남아 사무소에 대한 감사에서도 유사한 부적절한 행정 사례들이 적발된 바 있다.

해외사무소의 주요 업무 수행과 관리 미흡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능 재정립과 민간 위탁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사무소 운영은 '지방외교'나 다름없다.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많은 해외 도시를 '친구'로 삼거나, 전남의 이미지만 추락시킬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한국 장애인 스포츠와 전통문화를 홍보하는 '파라 팀 코리아하우스(Para Team Korea House)'가 2024 파리 패럴림픽 기간 동안 운영된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프랑스 파리 마레 지구 '마레의 쇼룸' 1층 210㎡, 지하 1층 238㎡의 공간에 코리아하우스를 마련, 다음 달 6일까지 마레 지구를 찾은 파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장애인 스포츠 역사와 문화, 관광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뉴스스

서석대

늦은 저녁, 조금은 선선해진 날씨에 산책에 나섰다. 평소 자주 지나다니지 않았던 옆 동네 골목길에 들어서자, 주택가 대문 앞 평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부채질하는 할머니 두 분을 만날 수 있었다.

지금도 저런 집 앞 평상이 있구나 싶다가 올여름 특히 자주 회자됐던 1994년 여름의 모습이 떠올랐다. 사실 1994년의 여름은 내 기억 속 풍경은 아니다. 그저 TV나 영화에서 '기록적인 더위'로 표현되던 모습을 떠올릴 뿐이다.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에서 신촌 하숙을 운영하는 성동일, 이일화 부부는 무더위를 이기지 못해 집 앞 골목 담벼락

밑에 이불을 깔고 잠을 청한다. 어떻게 길바닥에서 잠을 자냐고 툭툭거리던 '개딸' 고아라도 집집마다 자리를 펴놓고 더위를 피하는 사람들로 그득한 골목 풍경을 보곤 말없이 베개를 들고 나온다. 추억으로 미화된 드라마 속 풍경일 뿐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어쩌면 지금보다 30년 전 폭염이 좀 더 견디기 수월했는지 모른다는 염치 없는 생각이 든다.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28일 기준 국내 온열질환자는 3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3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는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할 지경이다. 최근 부산에서는 한 40대



남성이 온열질환 의심 증상으로 쓰러지며 머리를 다쳤지만, 시골도 아닌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에서도 곧바로 이송될 수 있었던 응급실이 없었다. 남성은 차량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울산 병원에 도착했지만,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국 숨졌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6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30년 전 여름은 더위 자체로, 혹은 병원이 멀어 고통 받았을지언정, 수많은 병원을 코앞에 두고 구급차 안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돌며 숨지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다.

대부분 간호사로 이뤄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 소식에 환자들은 또 한 번 절망하는 기숨을 부여잡았을 것이다. 그나마 각 병원의 교섭 타결 소식이 속속 들려오며 최악의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돌아올 생각이 없는 의사들의 자리를 메우고 있는 이들이 다시 두손 두발을 드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의 지표들을 차례로 갈아치운 2024년의 여름은 어쨌든 지나가고 있다. 지금 최악의 의료 대란도 이번 여름처럼 어쨌든 지나갈까. 기대 없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곽지혜 취재1부 기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